

One pick

오늘 뭐 입지?



현아

이유비

롱부츠, 어디까지 신어봤니?

송혜교 브라운 계열 부츠... 늦가을 '오피스 룩' 굿
현아·이유비, 청바지·숏팬츠에 매치 '개성 토크'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좀처럼 즐기기가 힘들다. 멋도, 보온성도 포기할 수 없다면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를 눈여겨보자. 가을의 상징인 트렌치코트부터 발랄한 미니스커트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매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배우 송혜교는 최근 한 브랜드 화보로 늦가을에 응용하기 좋은 롱부츠 패션을 선보였다. 코트와 터틀넥 니트, 롱부츠를 모두 브라운 계열로 통일해 단정한 느낌을 살렸다. 무난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이 '오피스 룩'으로도 인정맞춤이다.

가수 현아와 연기자 이유비는 롱부츠를 청바지와 숏팬츠에 매치하며 톡톡 튀는 개성을 드러냈다. 현아는 품이 큰 재킷과 털모자, 가방에 단 곱 인형으로 자유분방한 느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독특한 프린트가 인상적인 롱부츠를 신어 눈길을 확 사로잡는다. 이유비는 양 갈래로 묶은 헤어스타일, 후드 티셔츠와 숏팬츠를 조합해 귀여운 매력을 강조했다. '캠퍼스 룩'을 연상시키는 편한 복장이라 연령과 상관없이 따라 하기 좋다. 이처럼 팬츠와 롱부츠를 같은 색깔로 맞춰 입으면 다리가 한층 길어 보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연말 할리우드 대작에 맞설 설경구 새 주연작 '킹메이커'

‘불한당’ 제작진과 의기투합...설, 다시 일낼까?

칸 영화제도 인정했던 ‘불한당’
이선균·유재명 등 동료들 경쟁
대통령 선거 나선 정치인 변신
‘대선 정국’ 눈앞...홍행 청신호

배우 설경구가 ‘홍행 킹’ 자리를 노린다. 올해 연말 할리우드 대작의 잇단 극장가 공략에 맞서 한국영화를 ‘대표’할 간판스타로서 위상을 겨냥하고 있다.

설경구는 12월 개봉하는 새 주연작 ‘킹메이커’(제작 씨애플름)를 통해 연말 극장가 장악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 일정을 엿보다 최근 계획을 확정하고 관객을 만난다. 특히 그의 새로운 도전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흥행 기대감을 키운다.

우선 설경구는 2017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호흡을 맞춘 변성현 감독과 다시 손잡았다. 설경구는 이 작품으로 ‘중년들의 별칭을 얻으며 ‘불한당원’이라 불린 팬들을 매개로 팬덤을 크게 확장했다. 스타일리시한 슈트 차림으로 여성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그는 그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소개해 호평 받았다. 또 올해의영화상·대중상·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주연상 등



투스타 설경구가 이번에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영화 ‘킹메이커’에서 197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김운범’이 되는 그는 연말 극장가 관객몰이에 나설 기대작의 주역으로 꼽힌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을 휩쓸었다. 이런 과정에서 변 감독에 대한 ‘무한신뢰’로 “다음 작품도 함께 하자”며 의기투합했다.

‘킹메이커’에서 함께한 동료 배우들도 만만치 않다. 2019년 ‘기생충’ 이후 다시 스크린에 나서는 이선균을 비롯해

유재명·조우진·박인환·이해영·김성오 등이 설경구와 공연했다. 각기 자신들의 작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해온 배우들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들이 힘을 모은 ‘킹메이커’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대의를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정치인과 그를 돕는 선거 전략가의 이야기이다. 혼탁한 선거판을 무대 삼아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정치인 캐릭터가 설경구의 몫이다. 정치인의 신념에 부합한 선거 전략가 이선균과 함께 이끄는 이야기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는 현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눈길을 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실제 현실정치의 흐름이 영화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욱이 ‘킹메이커’는 별다른 한국영화 기대작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올해 연말시즌 관객에게 다가선다.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매트릭스: 리저렉션’,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등 대작 외화가 잇따라 12월 개봉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유일한 한국영화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대작 외화의 개봉 속에서도 한국영화가 여전히 관객의 관심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킹메이커’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와! 한국 애니 수준이 이 정도였어

뮤지컬 장르 표방한 ‘무녀도’
전태일 이야기 담은 ‘태일이’
최근 시사화 후 호평 쏟아져

두 편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최근 시사화 등을 통해 선보여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작가 김동리의 동명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가 24일 개봉한다. 애니메이션으로는 보기 드문 뮤지컬 장르를 표방한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장편경쟁부문인 콩트르상 섹션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수작으로 꼽힌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는 세계 최고 권위

를 인정받고 있다.

‘무녀도’는 김동리의 1936년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무녀인 어머니와 기독교 신자 아들의 갈등을 그린다. 앞서 김유정의 ‘봄봄’과 황순원의 ‘소나기’ 등 문학작품을 스크린에서 선보인 안재훈 감독은 “무녀라는 소재가 굉장히 한국적이며 신선하다”고 자부했다. 안 감독은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담은 동시에 작두를 타며 고통을 하는 무녀의 모습 등을 고증을 거친 아름답고 섬세한 분위기로 그려냈다.

이들 뮤지컬 배우 소냐와 김다현이 생생함으로 살려낸다. 목소리 연기는 물론 한국적 정서를 담아 극중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970년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려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태일이’도 12월1일 관객을 만난다.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노리는 ‘무녀도’와 ‘태일이’.(위부터)
사진제공 | 씨네밀운·리틀빅픽처스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22살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그린 최호철 작가의 동명 만화가 원

작이다. 연출자 홍준표 감독은 “애니메이션이 가진 힘은 세대의 벽을 허물고, 무거운 소재의 이야기라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모든 세대의 관객에게 다가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야기는 장동윤을 비롯해 염혜란, 진선규, 권해효, 박철민, 태인호 등 연기자들의 목소리 연기로 힘을 얻는다. 장동윤이 전태일, 염혜란이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역을 맡았다.

‘태일이’는 제작진의 면면으로도 관객의 신뢰를 얻을 전망이다. 2011년 220만여 관객을 불러 모은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제작사 명필름이 만들었다. 명필름은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은 물론 일반 관객으로 이뤄진 ‘서포터즈’ 등 모두 1970명의 ‘제작위원’과 함께했다. 또 2006년 ‘아치와 씨팍’으로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김선구 PD가 참여하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